

## “소비심리 지표보다 나빠 ... 전자상거래 반사이익”

가계의 소비 심리가 정부 통계 지표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끔찍 얼어붙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유통업 중 면세점과 백화점 등이 직격탄을 맞고, 반대로 온라인 거래를 증대하는 전자 상거래 업체는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6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퍼낸 보고서에서 “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한 달 전보다 역대 셋째로 큰 하락 폭인 7.3포인트 내린 96.9를 기록했다.”며 “우려되는 것은 실제 소비 심리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이전인 지난달 10~17일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주 연구원은 “코로나19의 충격이 온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015년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 당시에는 지표 급락 이후 바로 반등세가 나타나 4개월 만에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2월 소비자 심리 지수의 전월 대비 내림 폭(7.3포인트)은 2008년 10월 금융

위기(-12.7포인트),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11.1포인트) 다음으로 크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때는 이번과 같은 7.3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2003~2019년 중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100)으로 놓고 수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주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는 유통업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지만 판매 경로별로 영향이 다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면세점을 꼽았다.

과거와 달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인바운드)보다 보타리상 수요가 많아지며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덜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매출 30~40%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백화점 역시 소비자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기피하는 분위기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일부 점포의 임시 휴업 등으로 매출이 뒷걸음질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전자상거래 업체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봤다. 온라인 매출 증가 때문이다.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과 최근 사재기 수요가 몰리는 대형마트 등도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했다.

##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92명 기록 ‘인구절벽’ 본격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92명으로 떨어져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장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6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 통계청은 이날 ‘2019년 출생·사망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뒤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돈다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면 출생아 수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꼴찌이다. 한국에 이어 합계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지만 이들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3명이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30만 명을 겨우 넘겼다. 2018년 출생아 32만6,822명보다 7.2%나 줄어든 수치이다. 1970년대 100만명대였던 한해 출생아 수는 2002년에 40만 명대로 떨어졌고, 2017년부터 30만명대로 진입했다.

지금 속도라면 내년에는 30만 명 선

도 깨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구 자연감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데 반해, 노인 인구의 증가로 사망자 수는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출생아와 사망자(29만5,100명) 수를 비교한 인구 자연증가는 8천 명에 그쳐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에서 2019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연도 계산은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 이듬해 6월 말까지로 하기 때문에, 인구 자연감소 시점을 2019년(2019년 7월1일~2020년 6월30일)으로 예측한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실제 지난해 4분기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어 분기별 인구 자연감소(-7,300명)는 이미 시작됐다. 통계청이 2016년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2015~2065년)에서 예측된 인구 자연감소 시점은 2029년이었다. 그러나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통계청은 2018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공표했다. 2년 만에 시점 예측이 10년이나 앞당겨진 셈이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b>플러튼</b> <b>\$549,000</b> 단층 단독주택 방3 화2 1641 sqft 넓은대지 6800sqft 탁트인 집안구조 플러튼 통합교육구	<b>플러튼</b> <b>\$449,000</b> 인기힘든 가격의 방2 화2 1250sqft 콘도/타운하우스 단층구조 두개의 아주 넓은 매스터 룸(en suite bathroom) 휴양지에 온듯한 쾌적한 환경의 콘도 브레이크 룸, CSUF가까운 거리 트로이학군	<b>플러튼</b> <b>\$449,000</b> 타운하우스 방2 화2 아주 cozy한 마당, 새마루, 새부엌, 그레닛카운터탑 새 워터히터, 넓게 트인 거실, 최고의 학군 라구나로드, 팩스 서니힐스 하이, Move in/ Turn key	<b>라미라다</b> <b>\$497,000</b> 많은 분들이 선호 하시는 힐스보로 타운하우스 방2 + Den 화2 아주 넓은 탁트인 실내구조 코너 끝 유닛
<b>USC / Downtown 근처 3 unit</b> <b>\$695,000</b> #1 방4 화2 #2 방1 화1 #3 방1 화1 인컴이 너무 인컴 매물 입니다 현재 인컴 \$5,100 Cap 6.5%	<b>LA Downtown/USC 근처 Duplex</b> <b>\$679,000</b> 집전체 리모델링 한 turn key 1842sqft 4500대지 #1 방3 화1 1/2 #2 방1 화1	<b>어바인</b> <b>\$869,000</b> No-HOA No-Mello Roos 단독주택 단층집 1650sqft 방4 화2 아늑하고 조용한 Cul-de-sac위치, 최고의 학군	<b>어바인</b> <b>\$688,000</b> 타운하우스 방3 화3 초중고 도보거리 최고의 학군, 모던한 실내 업그레이드 된 부엌과 목욕탕 Turn Key
<b>RSM 어바인 근처</b> <b>\$495,000</b> 랜초 산타마가리타 타운홈 방2 화2 2car garage 싱글홈 느낌의 타운홈 Move in condition Top rated Schools	<b>RSM 어바인 근처</b> <b>\$360,000</b> 랜초 산타마가리타 방2 화2 리모델링한 부엌 그레닛카운터탑 New Appliances 단지	<b>South Gate 6units</b> <b>\$1,480,000</b> 인컴 매물 5.7 % cap rate, 5- 방2 화1 1-방1 화1 리모델링 끝낸 건물	<b>사업체**식당</b> 오렌지카운티 터스틴 어바인 지역에서 성업중인 중식당(한국식/미국식) 리스기간 5년이상 순이익 2만불 <b>\$600,000</b>

**주택,상가,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Leah Ivy Chang**  
 Realtor  
 DRE Lic: 02086695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Member of NAR, CAR, PWR  
 LeahchangRealty@gmail.com

# 949.501.8555

Irvine: 8 Corporate Park #220  
 Buena Park: 6561 Beach blvd  
 Los Angeles: 3435 Wilshire blvd #1828